대선특보 6호

혁명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자본주의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노동자권력 쟁취!

■ 발행일 : 2012년 12월 17일(월)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블로그 : 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김소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스스로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서겠다는 선언이다.

2012 대선이 보수(진영) 대 진보(진영) 세력 사이의 진영싸움이라는 것은 허구다.

대선 투표일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류 언론에서는 온통 대선 판세와 대선 결과를 진단, 분석, 예상하는 내용으로 신문 지면과 TV 화면을 가득 매우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박근혜와 문재인으로 도배되고 있다. 주류 언론과 부르주아 정치학자, 평론가들은 하나 같이 이번 대선의 특징을 지난 1987년 이후 최초로 양강 구도로, 보수(진영) 대 진보(진영)의 싸움으로 치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들의 말대로 2012 대선이 87년 이후 없었던 양강 구도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보수 대 진보의 진영 싸움이라는 말은 틀렸다. 민주당(문재인)을 진보 진영 또는 진보를 대변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부르주아 정치지형에서도 진보가 아니다. 계급적 기반에 있어서는 물론, 정강정책에 있어서도 완연한 보수정당이다. 결국 현재의 대선 구도는 보수 양강구도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금 진보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진보정당'이 무대에서 사라진 착시효과 때문이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진보정당'조차 아예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빌미와 근거를 '진보정당'이 제공했다. 심상정은 일찌감치 본등록을 포기했고, 이정희는 이미 예정된 수순에 따라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비대위 체제에서 '진보적 정권교체'(사실상 문재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2012 대선은 '진보정치' 의 파산을 확인하는 선거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이 갖는 특징은 오히려 지난 1997년 이후 민주노총이 방침을 통해 배타적 지지(이것이 올바르다는 의미에서는 아니지만)를 강제한 '진보정당' 후보마저도 사실상 무대에서 퇴장한 선거라는 사실에 있다. 민주노총이 끝내 '진보적 정권교체'를 호소하고 나설 만큼 무참하게 망가진 선거라는 데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5년에 걸쳐 이루어진 '진보정당', '진보정치',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실패와 파산이 가져온 최종적 결과를 드러낸 선거다. 진보정당, 민주노총 상층 개량주의 관료지도부가 다수 노동자에게 엄청난 실망과 패배를 안겨 준 선거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은 선거 공간에서나마 최소한의 활기나 활력은 고사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모른 채 황망하게 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게 한 그러한 선거다. 그 결과 끝내는 문재인(자본가 정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된 참담한 선거다. 이번 선거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등장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과 독자성, 즉 노동해방을 향한 열망을 25년 전으로 퇴보시킨 선거다. 단지 평면적으로, 물리적 시간에서만 퇴보시킨 것이 아니라 지난 25년에 걸쳐 노동자계급이 치른 그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선거다. 고통과 희생을 자유주의 정당이 가로채 가게 한 선거다.

'진보정치' 파산은 때 늦은 것이다.

물론 우리는 '진보정치'가 파산한 것이나 '진보정당' 후보가 사라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안타까움도 없다.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의 실패와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공백을 사회주의 세력을 포함한 좌쪽에서 매우지 못하고 지배계급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 정당, 즉 우측이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사회 정치지형이 지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좌쪽으로 이동한 정세에서, 특히 이러한 정세 변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노동자 민중 투쟁이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져 버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민중 투쟁이 그 이전과 비교해 월등히 급진화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한국의 계급정세는 참으로 뼈아프다.

2012 대선은 '노동자 독자정치인가, 정권교체인가' 의 구도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정세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2012 대선(투쟁)은 적어도 기존 '진보정당', '진보정치'를 비판,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일찍부터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 vs '노동자대통령후보 선거투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개량주의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정파들 중에도 일부는 '노동자대통령후보 선거투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 자기 자신이 먼저 나서 '노동자대통령후보 선거투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사나 의지를 가지려 하지 않았다. 물론 대선 공동대응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선 투쟁 진행에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이유를 들어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다.

그러나 '선투본'은 이번 대선정국에서 지난 '진보정당', '진보정치'가 낳은 역사적, 정치적 폐해를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한 정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판단을 최우선에 두었다. 선투본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지금 현실에서 보듯이 결국 정권교체 논리에 더욱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된 마당에는 거기에 그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인다 해도 그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번 대선정국에서 철탑투쟁이 없었다면, 현대차비지회 투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면, 장기투쟁 사업장의 투쟁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마저 등장하지 않았다면 2012년 대선정국에서 투쟁하는 사업장/노동자도, 열성적인 조합원도, 현장 활동가도 정말이지 손 놓고 앉아있어야 했을 뻔했다. 물론 이런 가정은 우리에게는 굳이 필요치 않다. 이미 손 놓고 앉아있어야 하는 현실을 돌파하고자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지형, 즉 '노동자 독자정치인가, 정권교체인가'가 성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명백히 목적의식적으로 시도한 결과다.

'선투본' 을 지지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스스로 주체로 서겠다는 선언이다.

'선투본'은 등장한 순간, 특히 그것이 '선거투쟁(대응)'이라는 현실 때문에 아무리 '노동자대통령후보 선거투쟁'이라고 했을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투본'은 처음부터 기존 부르주아 선거 아래에서 자신을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삼기를 거부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의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지 않았다. 주체와 대상을 하나로 묶었다. 함께 주체가 되자고, 함께 주체로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선투본'은 자신이 자기의 대상이다. 누군가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자신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대상이 된 것이다. '선투본'은 자신과 자기 밖을 분리하지 않았다. 자신 밖을 자기화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자기 밖으로 확장하려 했다.

따라서 누구든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 vs '노동자대통령후보 선거투쟁' 중 후자를 선택, 지지한다는 것은 단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의미)에서가 아니라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식적 행위로서의 선택, 지지이어야 한다. 즉 단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넘어 스스로 주체로 서겠다는,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자기 선언'으로서의 선택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가 낳고 있는 온갖 혼란과 혼돈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 정말이지 그것은 극복이다. 스스로 극복되지 않고 누구를, 세상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만이다. 반드시 먼저 극복해야 한다. 혁명